

전일동향

전일대비 5.00원 상승한 1,371.20원에 마감

2일 환율은 전일대비 5.00원 상승한 1,371.2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1개월물 상승을 반영해 전 거래일 증가 대비 5.80원 상승한 1,372.00원으로 개장했다. 간밤 글로벌 위험선호 위축에 상승 출발한 환율은 장 초반 1,377원대까지 레벨을 높였다. 뉴욕 증시 분위기를 이어받아 국내 증시도 외국인 자금 순매도에 하락해 위험통화인 원화 가치에 악재로 작용했다. 오후장에서 환율은 수출업체 이월내고 물량과 차익실현 매물을 소화하며 하락 전환했고 미국 비농업 고용지표 등을 대기하며 1,371.20원에 증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8.9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20.14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증가(15:3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372.00	1377.20	1356.00	1371.20	1372.80
엔화	914.49	936.30	912.93	935.71	-	
유로화	1474.22	1496.88	1473.31	1496.03	-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2.16	-7.54	-14.59
결제환율(수입)		-1.45	-6.52	-12.85	-23.85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미 비농업고용 냉각에... 1,350원대 중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5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371.20) 대비 12.70원 하락한 1,356.0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미국 고용지표 부진에 따른 달러 약세와 아시아 통화 강세 등에 하락 압력이 우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달러화는 미국 7월 비농업 고용 쇼크에 국제금리와 급락했다. 미국 7월 비농업 신규고용은 11.4만명 증가해 예상치 17.5만명을 크게 하회했고 실업률은 4.1%에서 4.3%로 상승하며 예상치 및 전월치를 상회했다. 시간당 평균임금 역시 전월비 0.2%에 그치며 예상치를 하회했다. 고용쇼크에 미 장단기 국제금리는 급락하며 2년물은 26.8bp 하락한 3.884%, 10년물은 18.4bp 하락한 3.794%를 기록했다. 뉴욕 증시는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위험회피에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다. 한편 엔화는 미 국제금리 급락 등에 강세 흐름을 지속하며 146엔대에서 마감했고 유로화 역시 연준 금리인하 기대감에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금일 환율은 글로벌 약달러 및 역내 수출업체 이월 네고물량 등에 하방 우세 흐름이 전망된다.

다만, 수입업체 결제수요 유입은 하단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352.00 ~ 1361.33 원
---------------	---------------------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8448.85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2.7원 ↓
	■ 美 다우지수 : 39737.26, -610.71p(-1.51%)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03.09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7123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